



충청남도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

자료집

일시 | 2023. 12. 14. (목) 14:00~16:00

장소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

주관 |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발제 01

김택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육성팀장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충청남도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의정토론회

'23.12.14(목),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육성팀장 김택한

벤처투자&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펀드 및 글로벌 진출' 확장의 필요성

I. 정책제안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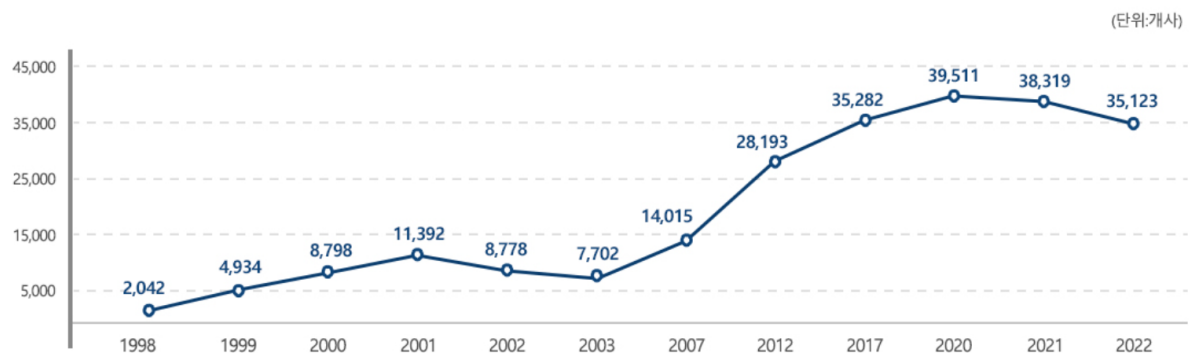
‘충남의 벤처투자 및 창업생태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

○ 국내 및 충남의 벤처기업 현황

– 국내 벤처기업 현황: ‘98년 2,042개 -> ’22년 35,123개 증가

- ‘98년 2,042개사 확인 이후 증가하여 ‘22년 35,12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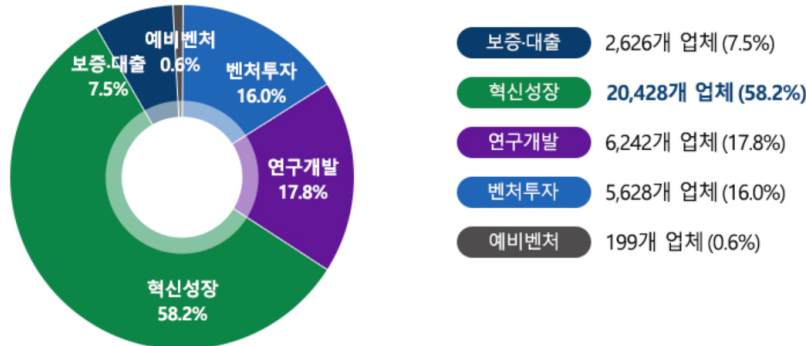
(단위: 개사)

구분	1998	1999	...	2007	...	2012	...	2020	2021	2022
업체수	2,042	4,934	...	14,015	...	28,193	...	39,511	38,319	35,123

출처: 벤처기업 현황 ('22. 12월 말 기준), 벤처기업확인기관

- 국내 벤처기업 유형: 혁신성장 20,428개(58.2%), 연구개발 6,242개(17.8%), 5,628개(16.0%), 보증·대출 2,626개(7.5%)

- 혁신성장유형 58.2%, 연구개발유형 17.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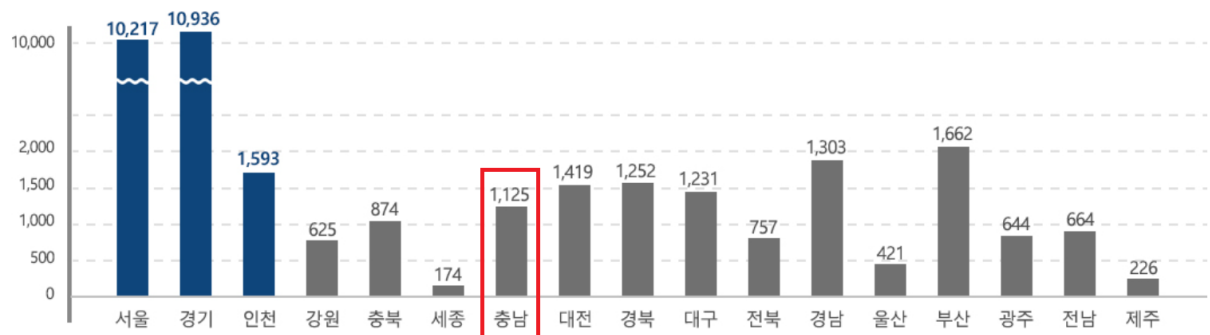
(단위: 개사)

구분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보증·대출	예비벤처	합계
업체수	5,628	6,242	20,428	2,626	199	35,123
비율(%)	16.0	17.8	58.2	7.5	0.6	100

출처: 벤처기업 현황 ('22. 12월 말 기준), 벤처기업확인기관

- 충남의 벤처기업 현황: 18개 시도 중 충남은 1,125개(3.2%) 9번째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벤처기업이 64.7% (22,752개)를 차지



(단위: 개사)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세종	충남	대전	경북
업체수	10,217	10,936	1,593	625	874	174	1,125	1,419	1,252
비율(%)	29.1	31.1	4.5	1.8	2.5	0.5	3.2	4.0	3.6
구분	대구	전북	경남	울산	부산	광주	전남	제주	합계
업체수	1,231	757	1,303	421	1,662	644	664	226	35,123
비율(%)	3.5	2.2	3.7	1.2	4.7	1.8	1.9	0.6	100

출처: 벤처기업 현황 ('22. 12월 말 기준), 벤처기업확인기관

○ 벤처기업의 역할

- 202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 고용, 혁신기술개발의 효과를 내고 있음(21년말 기준 37,686개사의 벤처기업)
- 전체 벤처확인기업 38,319개사에서 휴폐업 등 633개사를 제외)의 총 종사자 수는 83만 4,627명)
-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 72만명보다도 약 11만여 명이 많아 우리 고용시장에서 벤처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21년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 83만 4,627명, 전년 대비 2.1% 증가
- '2021년도 기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벤처기업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조(7.8%) 증가한 223조원으로, 기업집단 중 삼성 311조원에 이어 2위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2%로 대기업의 1.9배... 벤처기업 군이 다른 기업 군에 비해 혁신기술개발에 매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처: 202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사)벤처기업협회, 글로벌리서치

○ 국내 및 충남의 벤처투자 현황

- 국내 2022년 벤처투자는 전년 대비 11.9%(9,162억원) 감소한 6조 7,640억원, 역대 최대였던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

< 최근 5년간 벤처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건, 개사)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금액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전년 대비	증감	-	+8,528	+268	+33,757	△9,162
	증감률	-	+24.9	+0.6	+78.4	△11.9
투자 건수		3,150	3,713	4,231	5,559	5,286
피투자기업 수		1,399	1,608	2,130	2,438	2,474

- 충남 2022년 벤처투자는 전년 대비 15.1%(150억원) 증가한 1,141천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 비중 1.7%인(18개시도 중 6위)
-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은 '13년 97조원에서 '20년 113조원으로 약 26조원 증가(15.8%) 하여, 비수도권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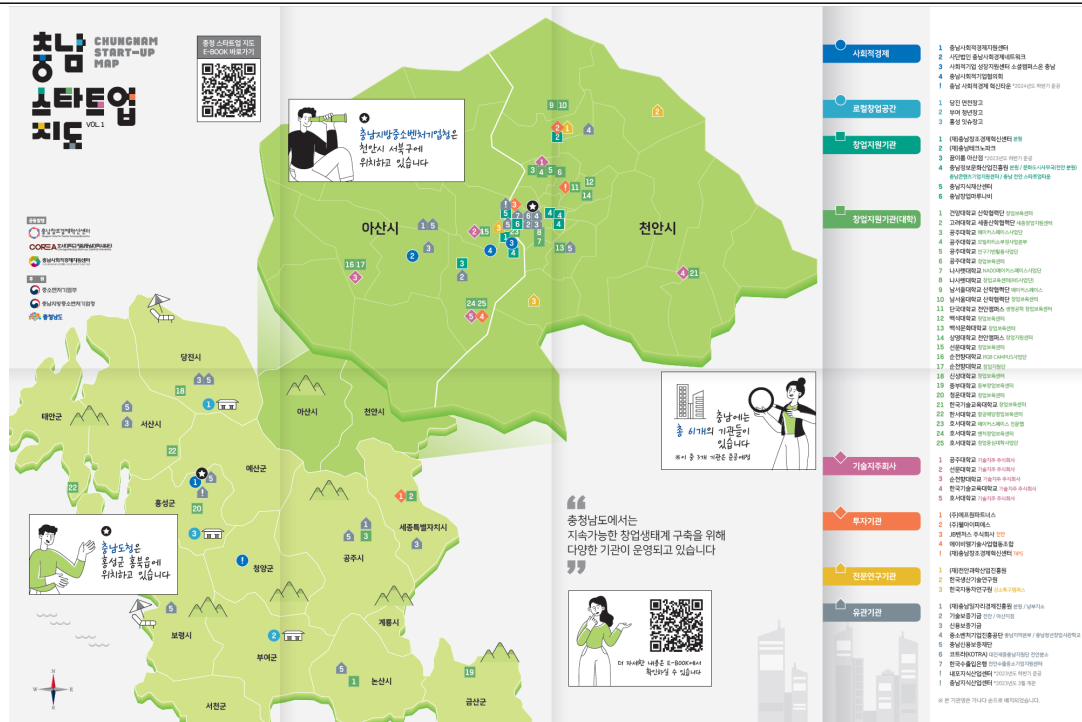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p)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1년 대비	
충 남	금 액	457	331	761	991	1,141	+150	+15.1
	비 중	1.3	0.8	1.8	1.3	1.7	+0.4	-

<출처: 2022년 벤처투자 동향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 충남 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 및 기관

- 예비단계에서부터 도약단계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기관 및 프로그램 존재
- 창업지원 6개, 대학교 지원 24개, 기술지주 5개, 투자기관 5개, 전문연구기관 3개, 유관기관 9개, 로컬 및 소셜 8개, 총 60개 프로그램(운영기관중복)
- 벤처창업지원 기관으로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등
- 대학은 호서대학교(창업중심대학사업), 순천향대학교(초기창업패키지) 등
- 연구기관으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 유관기관으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충남 스타트업 지도, 2023년도 발간(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충남과학기술투자네트워크협의체(CSI) 운영



충남과학기술투자 네트워크 발족 및 협의체 운영(1~3회)

○ 글로벌 진출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충남 글로벌 익스팬션 얼라이언스(CGEA)



하노이 현지 액셀러레이터(Thinkzone), 현지기업 파트너확보(KIMSEN)

□ 벤처투자자

○ 엔젤투자자 현황

- 엔젤 등록 현황: 30,052명(충남 953명, 2.0%)
- 엔젤클럽: 259개(충남 4개, 1.5%)

<출처: 한국엔젤투자협회, 2023.3월말 기준>

○ 액셀러레이터 현황

- 전국 375개사 중 충남은 11개사로 2.9%

(단위: 개, %)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울산	강원	제주	합계
기업	200	40	13	22	7	24	9	3	9	3	6	11	7	6	5	7	3	375
비율	53.3	10.7	3.5	5.9	1.9	6.4	2.4	0.8	2.4	0.8	1.6	2.9	1.9	1.6	1.3	1.9	0.8	100
	67.5			32.5														100

- 운영 주체는 주식회사 4개, 창조센터 1개, 신기사 4개, 신창사&LLC 각 1개

지역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창조센터	산학협력단	창투자	기술지주	신기사	신창사	LLC	계
충남	4	-	1	-	-	-	4	1	1	11

<출처: 창업진흥원, 2022.5.31. 기준>

○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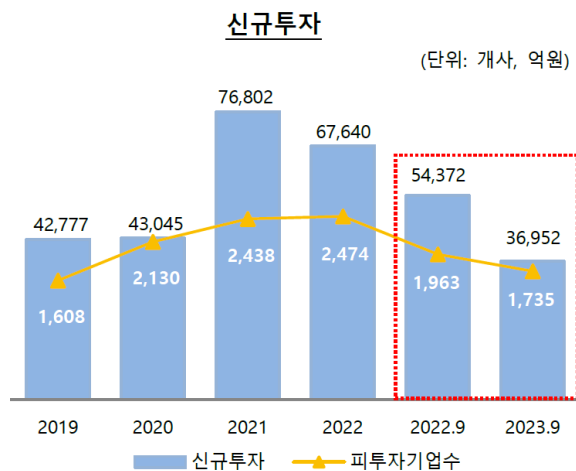
- 투자 현황(2023.09.30.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경북	충남	충북	세종	기타/해외	합계
2023	17,663	7,008	640	900	2,376	1,522	749	721	166	3,397	36,952



출처: 벤처투자종합포털, 2023

- 2023년 신규 결성된 184개 조합의 총 약정금액은 4조1,129억원, 운영중인 조합은 1,876개로 총 약정금액은 54조6,093억원
- 신규투자는 1,735개사. 3조6,952억원이 투자되어 전년동기 대비 32.0% 감소(전년동기: 1,963개사, 5조4,372억원)
- 전년대비 분기별 투자 현황은 1분기 13,007억원(58.6%감소), 2분기 6,015억원(31.1%감소)
- 3분기 펀드 투자는 분기대비 1,602억원(12.5%증가)



구 분		분기별 투자현황 (단위: 억원, %)		
		2022	2023	전년 대비 증감률
1분기 (전분기 대비)	22,214	9,207	△13,007	△58.6
2분기 (전분기 대비)	19,315	13,300	△6,015	△31.1
3분기 (전분기 대비)	12,843	14,445	+1,602	+12.5
4분기 (전분기 대비)	13,268	-	-	-
합 계	67,640	36,952	△17,420	△32.0

출처: 2023년 3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충청남도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패넬토론

○ 발제자 및 패넬 소개

- 소개인사(소속, 업무영역 등)
- 대학 및 기관의 역할
- 광역 · 기초 지자체의 역할

○ 조성규(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대학 및 엔젤투자자로서의 역할 및 방향성
- 충남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이현민(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

- 연구기관,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역할 및 방향성
- 충남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김동규(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타운단장)

- 인큐베이팅 공간 및 창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방향성
- 충남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권경선(충청남도청 기업지원과 과장)

- 광역 지자체의 역할 및 기초지자체, 대학, 기관과의 협력 방안
- 충남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토론

01

조성규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충청남도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론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MOT)

대학 및 엔젤투자자로서의 역할 및 방향성

1. 대학 및 엔젤투자자로서의 역할

대학의 역할

연구 및 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기술 지원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자금 지원 및 자본 유치를 적극 지원 한다

산학협력 및 인프라 공유를 통해 지원 한다

충남권 대학별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 분야를 육성 한다

대학의 역할

❖ 연구 및 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미래를 대비한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물은 벤처 기업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으며, 대학은 이를 기반으로 기술이전을 지원하여 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 TRL(기술준비수준) 6단계 이상의 기술시현이 가능한 기술준비 수준으로 기술사업화 가능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핵심

❖ 기술 지원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 기술적인 지식과 전문가들을 제공하여 벤처 기업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초기 단계의 벤처 기업들이 기술적인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대학내 연구실과의 유기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장기적 지원이 필요.

대학의 역할

❖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 학생들과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 및 가이드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지원하고, 초기 단계의 벤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 창업 단계 별 다양한 지원 사업 연계 필요

❖ 자금 지원 및 자본 유치를 적극 지원 한다.

- 벤처 기업들이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체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거나, 벤처 캠퍼스에서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여 벤처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는 데 지원한다. -> 대학보유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직접 투자 지원 필요

대학의 역할

❖ 산학협력 및 인프라 공유를 통해 지원 한다.

- 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기술의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를 공유함으로써 벤처 기업들이 연구와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발 제품의 성능 검증을 위한 특수 장비 및 시설 인프라 공유

❖ 충남권 대학별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 분야를 육성 한다.

-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고 전문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후 역할 분담 필요 -> 호서대학교(창업중심대학사업), 순천대학교(초기창업패키지) 등

엔젤투자자의 역할

투자과 경영지원 아끼지 않는다

창업 또는 창업 초기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준다

창업 초기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한다

필요자금과 경영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투자기업의 자산가치가 높아졌을 때 지분매각이나 IPO로 투자수익을 추구한다

엔젤투자자의 역할

❖ 투자와 경영지원 아끼지 않는다.

- 엔젤이 투자하는 자금은 고위험의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자금이다. 이 돈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기간, 즉 회사 창업 후 5년 내지 7년 정도에 회사를 운영하고 기술을 사업화 하는데 사용된다. 엔젤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견인의 역할도 수행한다. 자신의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창업 초기기업에 전수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사업의 성공확률을 높여 준다. 이처럼 엔젤의 역할은 다양하다.

❖ 첫째, 창업 또는 창업 초기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준다.

- 기업이 설립되어 성장 발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이다. 이처럼 창업기업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을 영위하는 데 위험도 크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선 가능하면 자금을 빌려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젤이 일정한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창업자들의 우수한 기술을 발굴해 낼 수 없게 된다. 엔젤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초기 기업, 그리고 연구개발이나 기업 설립 초기단계의 창업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한다.

엔젤투자자의 역할

❖ 둘째, 창업 초기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한다.

- 창업 초기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창업자의 소유지분(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경영(Equity-Financing)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서 운전자금화 하는 차입경영(Debt-Financing) 방식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 초기기업으로서는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운영하는 방식보다 훨씬 낫다. 그 이유는 창업 초기기업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 특성 1: 고위험 고수익 사업 추진 창업 초기기업은 기술력을 앞세워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라 할지라도 초기 기업이다 보니 경영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만큼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로 사업이 성공하면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IPO를 통해 주식가치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을 기반으로 하는 지분투자 방식의 투자가 바람직하다. 저위험(Low Risk)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 방식과는 성격이 맞지 않다.

엔젤투자자의 역할

- 특성 2: 미래 성장가능 기술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초기 기업의 창업자는 보통 젊은 공학도들이 주류를 이룬다. 아니면 과학자들이 많다. 이들은 기술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경영경험이 전무하다. 여기에도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산도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재무제표와 같은 객관적 자료나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게 그리 쉽지 않다. 이들 기업으로서는 자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나 다름없다. 그래서 창업 초기기업 입장에선 미래 기술력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엔젤에 의한 자금조달 방식이 더 좋다.

- 특성 3: 성장을 위한 긴 시간 필요 창업 초기기업이 기술을 사업화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하다. 엔젤은 이러한 여건을 감수하고, 자금을 투자해 환경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거나 IPO까지 오랫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 하지만 여신기간을 단기로 운영해야 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형편이다.

엔젤투자자의 역할

❖ 셋째, 필요자금과 경영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 사실 투자한 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벤처캐피털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엔젤은 이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이다. 엔젤 역시 투자한 기업에 대해 직간접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해야 한다. 자금제공과 더불어 투자, 회계, 법무, 해외 합작투자, 해외 마케팅 등 각종 경영에 필요한 서비스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엔젤이 자신의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투자한 기업에 전수함으로써 기업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엔젤투자자의 면면을 보면 창업에 성공한 후 기업을 넘기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벤처기업가나 대기업의 경영진으로 있다가 은퇴한 전문 CEO들이 많다. 이들은 자신의 경영경험과 경영 지혜를 투자기업가들에게 전수해 투자 수익을 많이 내고 싶어한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기업의 성장을 돕기를 원한다. 즉 자신의 전문분야와 맞는 사업의 기업가를 찾아 투자와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잡고 있다.

엔젤투자자의 역할

❖ 넷째, 투자기업의 자산가치가 높아졌을 때 지분매각이나 IPO로 투자수익을 추구한다.

- 엔젤투자자는 일정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고 은퇴한 전문 경영인이나 벤처 기업가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일부를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한다. 금융기관과 같이 고수익이 주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을 추구하고, 투자 수익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엔젤은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할 때 세밀하게 기업 가치평가를 하고, 일정 규모의 지분을 확보한다.

-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에 있어서도 신중하다. 엔젤이 투자지분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지분매각과 IPO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 두가지다. 그 중 '지분매각'이란 정부가 인정한 공개시장이나 또는 장외에서 개별 주체들간 사적인 계약에 따라 지분을 양수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IPO는 보통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을 공개하는 형태로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뿐 아니라 장외시장에서 경영권을 포함한 회사의 경영 전반을 넘겨주는 이른바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해 회수하기도 한다. 다만 금융제도와 상거래 관행, 그리고 엔젤의 개인적 성향 등의 이유에 따라 엔젤이 투자한 지분을 회수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2. 대학 및 엔젤투자자로서의 방향성

대학의 방향성

창업 생태계를 지원한다

투자 기금을 설정하여 지원한다

연구 및 기술 이전을 지원한다

산학 협력을 강화한다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투자자 네트워크를 구축 지원한다

대학 특성에 따른 역할을 분담한다

대학의 방향성

❖ 창업 생태계를 지원한다.

-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창업 센터나 기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 및 연구원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교육, 자금, 네트워킹 기회 등을 제공하여 창업을 장려한다.

❖ 투자 기금을 설정하여 지원한다.

- 벤처 투자를 위한 기금을 설정하거나 기존 투자 기금을 이용하여 학내 창업 프로젝트 및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이를 통해 학내 창업가들에게 자금적 지원을 제공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전시킨다.

❖ 연구 및 기술 이전을 지원한다.

- 대학 내 연구 결과물이나 기술적 발견을 사업화하고 스타트업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기술 라이선싱, 기술 이전 프로그램 등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실현 한다.

대학의 방향성

❖ 산학 협력을 강화한다.

-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학 연구 프로젝트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 산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산업적 문제 해결 및 혁신을 지원 한다.

❖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 창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하여 전문가들과의 상호작용을 도모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투자자 네트워크를 구축 지원한다.

- 벤처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투자자들과의 연결을 통해 자금 조달을 촉진하고 발전 가능성 있는 스타업을 발굴한다.

대학의 방향성

❖ 대학 특성에 따른 역할을 분담한다.

- 각 대학별 유사 및 중복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충남권 대학 센터별 특화 분야

센터명	특화분야	센터명	특화분야
공주대학교 BI	농공상융합	백석문화대학교 BI	영상미디어
중부대학교 BI	인삼·약초·바이오	남서울대학교 BI	디지털미디어
건양대학교 BI	식음료·환경·IT	단국대학교 BI	생명공학
호서대학교 BI	반도체·디스·나노	백석대학교 BI	정보통신
순천향대학교 BIT	BT·IT	한국기술교육대학교 BI	기계·장비제조
한서대학교 BI	항공·해양	신성대학교 BI	자동차·기계
선문대학교 BI	반도체·디스플레이	청운대학교	지식기반서비스

엔젤투자자의 방향성

- 창업 생태계를 지원한다
- 투자 가능한 기회를 확대한다
- 멘토링 및 리더십을 제공한다
- 지역사회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강조한다
- 기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 시킨다

엔젤투자자의 방향성

❖ 창업 생태계를 지원한다.

- 지역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창업자들에게 자금 뿐만 아니라 조언, 네트워킹, 경험 공유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창업 문화를 활성화 시킨다.

❖ 투자 가능한 기회를 확대한다.

-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술 영역에 투자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창업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혁신과 다양성을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에 자금을 지원한다.

❖ 멘토링 및 리더십을 제공한다.

-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업가들과 공유하고, 멘토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 외에도 창업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 중 하나이다.

엔젤투자자의 방향성

❖ 지역사회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 지역사회 내에서 엔젤투자자들끼리 네트워킹을 활발히 하여 창업 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들 간의 경험과 리소스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강조한다.

- 투자하려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경영 방침을 가졌는지 고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 기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 시킨다.

- 벤처 투자자들은 기존의 대기업이나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한다.

충남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하드웨어 인프라 구성

하드웨어 인프라 구성

- ❖ 벤처 특구 지정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벤처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 ❖ 충남 대표 육성 사업(자동차, 바이오,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성하고 중장기 계획으로 발전시킨다.
- ❖ 충청남도 소재 연구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과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 ❖ 벤처투자자와 관계된 구성원(창업자, 투자자, 기관, 대학, 파트너 등)들의 만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을 지원한다.

벤처 특구의 특징

- ❖ 세제 혜택: 벤처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벤처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을 일정 부분 감면하거나 감면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행정 지원: 벤처기업들이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지원을 제공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창업 절차나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임대료 및 비용 지원: 일부 벤처 기업들에게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부여하거나, 사무 공간 및 연구기자재를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낮춘다.
- ❖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벤처 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유관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연결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연구개발 및 혁신 활성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촉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한다.
-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벤처 기업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고,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벤처투자 인프라 구성

벤처투자 인프라 구성

- ❖ 충청남도 VC(벤처캐피탈) 육성: 기존 AC(엑셀러레이터) 레벨업을 통한 VC(벤처캐피탈) 영역 진출 및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및 신규 VC(벤처캐피탈) 진입 환경을 구축한다.
- ❖ 충청남도 직접 펀드 및 유관기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펀드를 지속적으로 출자한다.

토론 02

이현민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

□ 충청남도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패넬토론

○ 발제자 및 패넬 소개

- 소개인사(소속, 업무영역 등)
- 대학 및 기관의 역할
- 광역 · 기초 지자체의 역할

○ 조성규(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대학 및 엔젤투자자로서의 역할 및 방향성
- 충남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이현민(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

-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역할 및 방향성
- 충남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김동규(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타운단장)

- 인큐베이팅 공간 및 창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방향성
- 충남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권경선(충청남도청 기업지원과 과장)

- 광역 지자체의 역할 및 기초지자체, 대학, 기관과의 협력 방안
- 충남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소속 및 업무영역

연번	이 름(소속)	주요 이력 등 소개
1		
2	이현민 선임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 학력: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창업학 석사 졸업 - 경력: 한국벤처투자, 미래에셋캐피탈, 포항공대기술지주 - 자격: 벤처캐피탈전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등 - 업무: 기술창업지원, 투자 연계
3		
4		
5		

< 패널 토론 자료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현민 선임연구원) >

□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역할 및 방향성

○ 한국자동차연구원(구. 자동차부품연구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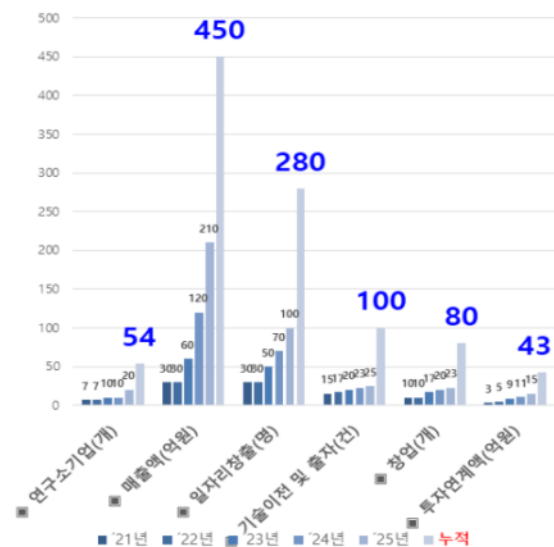
- 자동차 부품 업계의 자생력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로 1990년에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본원: 충남 천안시 소재)



출처: 한국자동차연구원 소개자료

○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인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사업’ 운영 (2021~2025년)을 통해 기술사업화 추진 및 기술 창업기업 지원 중

- 지역 내 강소특구 지정 구역 및 육성사업 추진 목표



자료 제공: 한국자동차연구원

○ 기술 기반의 창업 지원 및 기술고도화 지원

- 기술창업 지원 전문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기업의 연구센터 연계를 통한 기술자문, 공동 R&D 지원
- 기술창업 교육, 멘토링, 시제품제작,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 전방위 지원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창업기업 - 연구센터 연계

○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 지역 대학 내 기술사업화 조직 및 창업유관기관과 제휴를 통한 공공기술 이전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후속지원사업 연계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식



기술이전설명회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상담회

○ 투자-R&D 연계지원 인프라 구축 활성화

- 지자체와 함께 250억원 규모의 지역뉴딜펀드 조성 및 TIPS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지역 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및 R&D 연계 지원 중
- 국책투자기관 150억원, 한국자동차연구원 10억원, 천안시 6억원 등 참여



지역뉴딜펀드 결성식



TIPS프로그램 (스타트업/스케일업)

○ 혁신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기업 지원 역량 제고

- 지역 내 기술창업 및 전략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네트워크 구축
 - 충남 기술창업 지원 네트워크 (TNT; Technology startup Support network for Trailblazers)
 - 전국 모빌리티 창업지원기관 네트워크 (MSG; Mobility start-up Support Group)



충남 기술창업 지원 네트워크(TNT)



전국 모빌리티 창업지원기관(MSG) 네트워크

- 기술이전사업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문 네트워크 확산

- 충남 과학기술 투자 네트워크 (CSI; Chungnam Science & technology Investor)
- 미래차 투자심사역 네트워크 (FCI; Future Car Investor)



충남 과학기술 투자(CSI) 네트워크



미래차 투자심사역(FCI) 네트워크

- 글로벌 진출 지원, 온라인 투자연계 플랫폼 운영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온라인 투자연계 플랫폼

□ 충남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부산시의 펀드출자 사례 ('22.06월 기준)

- 37개 펀드에 총 673억원 출자, 6,34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하여 기업 지원 중
- 부산 지역 기업에 226건(153개사), 총 1,384억원 투자함

(단위: 억원)

No.	투자조합명	총액	시비	모태	기타	운출기간	운출기관(창투자)	협
1	부산벤처투자펀드1호	60	10	0	50	'00.04~'05.12	KT비트웍스주	협
2	부산벤처투자펀드2호	110	10	0	100	'09.09~'08.09	동양창업투자주	협
3	부산벤처투자펀드3호	111	11	50	50	'06.02~'13.02	㈜마이벤처파트너스	협
4	그린벤처투자조합	100	15	50	35	'09.03~'16.08	MG인베스트먼트	협
5	동남광역경제권 전략산업투자조합	103	5	50	48	'09.08~'16.08	BK인베스트먼트	협
6	부산영화투자조합 1호	50	30	0	20	'13.07~'21.06	유니창업투자자	협
7	KoFC-BK Pioneer Champ 2010-13호 투자조합	213	19	130	64	'10.07~'22.01	BK인베스트먼트	투자
8	BK 동남권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150	15	100	35	'12.04~'22.08	BK인베스트먼트	투자
9	L&S 동남권 투자조합	160	16	80	64	'12.07~'22.07	L&S 벤처캐피탈	투자
10	엘앤에스 6호 EarlyStageII 투자조합	150	15	90	45	'13.09~'22.09	L&S 벤처캐피탈	투자
11	엘앤에스 7호 동남권상생투자조합	100	15	50	35	'14.11~'22.11	L&S 벤처캐피탈	투자
12	BK동남권서비스 전략산업투자조합	100	15	50	35	'15.06~'23.06	BK인베스트먼트	투자
13	스톤브릿지 이노베이션센터투자조합	310	100	100	110	'15.10~'23.10	스톤브릿지벤처스	투자
14	부산 엔젤투자매칭펀드	50	10	39.5	0.5	'12.06~'24.06	한국벤처투자	투자
15	CCVC-부산 청년창업펀드	100	10	70	20	'16.03~'24.03	솔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투자
16	케이브릿지 1호 스타트업 투자조합	170	30	120	20	'16.03~'24.03	케이브릿지벤처스	투자
17	BK 5호 동남권 투자조합	100	15	50	35	'16.09~'24.09	BK인베스트먼트	투자
18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 펀드	501	15	9.8	476.2	'17.04~'25.04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투자
19	BK 6호 조성업 구조개선 투자조합	500	30	250	220	'17.05~'25.05	BK인베스트먼트	투자
20	케이브릿지 2호 동남권 일자리 창출 투자조합	100	15	60	25	'18.01~'26.01	케이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투자
21	케이브릿지 코나 혁신스타트업 투자조합	166	10	90	66	'18.09~'26.09	케이브릿지 인베스트먼트, ㈜코나인베스트먼트	투자
22	CCVC-코리아엔젤트펀드	195	10	140	45	'18.11~'26.11	솔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투자
23	케이그라운드-홍콩 청담 과학기술사업화 제1호 투자조합	179.1	10	100	69.1	'19.05~'27.05	케이그라운드 벤처스	투자
24	SR 올루이코노미투자조합	150	5	100	45	'19.05~'27.05	하이투자파트너스주	투자
25	스마트WE초기기업펀드1호	578	20	300	258	'20.09~'28.09	위벤처스(유)	투자
26	케이브릿지광업사업개발투자조합	217.2	50	145	22.2	'20.08~'28.08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유)	투자
27	BNK지역균형성장투자조합	165.4	7.5	80	77.9	'20.05~'28.05	BNK벤처투자주	투자
28	제피러스랩 개인투자조합 제1호	54	5	30	19	'20.10~'28.10	유한책임회사 제피러스랩	투자
29	부산-롯데 창조영화펀드	210	60	0	150	'16.03~'22.08	타임와이즈	투자
30	라구나다이나믹제업&콘텐츠펀드	158.6	10	75	73.6	'10.10~'26.10	㈜라구나인베스트먼트	투자
31	부산연합 제1호 개인투자조합	52	6	40	6	'16.07~'23.07	부산연합기술지주	투자
32	부산연합 제2호 개인투자조합	30	7	22	1	'17.10~'27.10	부산연합기술지주	투자
33	부산-대경연합 제3호 개인투자조합	41.8	7	30	4.8	'18.09~'27.08	부산연합기술지주	투자
34	B5다이나믹 스타트업 개인투자조합	50	5	30	15	'20.11~'27.11	부산연합기술지주	투자
35	메이비자크넥스트유니펀드 펀드	355	10	180	165	'21.09~'29.08	스마트스터디벤처스주	신규
36	비엔케이 부산지역유일 벤처펀드	250	24.7	74	151.3	'21.12~'29.12	BNK벤처투자주	신규
37	프스코 부산지역유일 벤처펀드	250	24.7	74	151.3	'21.12~'29.12	프스코기술투자	신규
합계		6,340.1	672.9	2,859.3	2,807.9			

출처: 센탐 (www.centap.kr)

- 충남의 경제 규모 대비 펀드출자 규모 비교

- 경제규모 고려 시 펀드출자 금액과 비중이 부산지역 대비 낮은 수준임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 출처: 네이버

- 전략산업별, 업력별, 테마별 등 다양한 전략적 투자펀드 조성 및 적극적인 투자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 필요
- 부산시: 전략산업(관광/레저, 영화, 조선업, 수산업 등), 창업, 공공기술사업화, 일자리 창출 등 펀드 Line-up 구성

부산시, 역대 최대 918억원 벤처펀드 선정..."전략적 투자 확산 추진"

정부의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공모서 4개 펀드 선정
4개 분야별 펀드 투자조합 운용사 8년간 운용

조원진 기자 | 2020-04-28 18:13:57 | 전국

부산시가 정부의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공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918억 원 벤처펀드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부산시는 28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모태펀드 2020년 제1차 정시 출자사업'의 4개 펀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모는 국비 555억원, 시비 100억원, 민자 263억원 등 총 918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해 4개 펀드에 출자금 100억 원을 투입한 결과 출자금 대비 8배에 해당하는 818억 원의 외부 출자금을 유치하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한국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10개 기관이 공동 출자해 공모사업을 통해 출자하는 펀드다. 정부자금인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으로 선정된 4개 펀드는 'WE Start-Up 펀드 1호'(창업 초기 분야), '케이브릿지 관광 산업 레벨업 투자조합'(관광기업육성 분야), 'BNK 지역균형성장 투자조합'(지방기업), '제퍼러스랩 개인투자조합 제1호'(개인투자조합 분야)이다. 이번에 선정된 펀드는 부산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분야별 투자조합 운용사가 앞으로 8년간 운용한다.

○ 4개 분야 918억원 ▶ 모태펀드 555^{60.5%}, 시비 100^{10.9%}, 민간 263^{28.6%}

(단위: 억 원)

연번	분야	조합명	운용사	증권투자대상	조성액			
					합계	모태	시비	민자
4개 분야 펀드, 918억원(모태펀드 555 ^{60.5%} , 시비 100 ^{10.9%} , 민간 263 ^{28.6%})					918	555	100	263
1	창 업 조 기	(가칭) WE Start-Up 펀드 1호	위벤처스(유)	창업기업 (3년 이내) 60%	500	300	30	170
2	관 광 기 업 육 성	(가칭) 케이브릿지 관광 산업 레벨업 투자조합	케이브릿지 인베스트먼트(유)	관광관련 중소벤처기업 65%	208	145	50	13
3	ICT 기 술 기 반	(가칭) BNK 지역균형 성장 투 자 조 합	BNK벤처투자(주)	IT, CT 관련 지방기업	100	00	15	65
4	개 인 투 자 조 합	(가칭) 제 퍼 러 스 랩 개인투자조합 제1호	제퍼러스랩	창업기업 (3년 이내) 60%	50	30	5	15

한국모태펀드 2020년 출자사업 선정 펀드 세부내역./사진제공=부산시

WE Start-Up 펀드 1호는 5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운용사인 위벤처스가 5G 등 핵심 기술기반분야와 로봇 등 기술기반 응용분야 창업초기 기업에 60% 이상 투자·운용한다. 케이브릿지 관광 산업 레벨업 투자조합은 운용사인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가 관광서비스, 마이스(MICE·복합전시산업), 레저산업 분야 관광산업 벤처·중소기업과 유관 프로젝트에 65% 이상 투자·운용한다. 조성규모는 208억원이다.

출처: 서울경제 (2020.4.28. 보도자료 일부)

토론 03

김동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타운단장

창업지원 기관으로서의 창업지원 공간 운영의 역할 및 방향성

-데스밸리를 지나는 스타트업에게 오아시스와 성장 플랫폼이 되자-

토론자 : 김동규(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타운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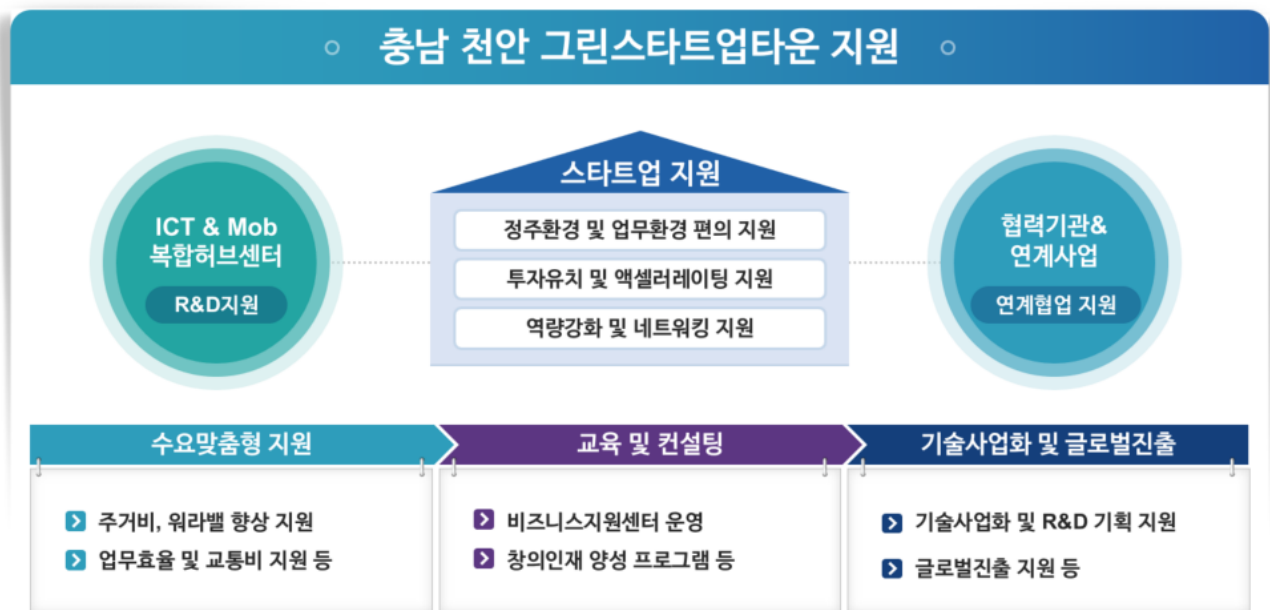
□ 충청남도의 정부주도 창업 인프라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북유럽 국가 등 주요 선진국이 앞다투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창업 인프라 조성 및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우리 정부(중기부)도 창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파크, 그린스타트업타운, 앞으로 ‘스페이스-K’와 같은 지역 창업 인프라 정책이 준비 중임
- ‘스타트업파크’는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F 등의 모델을 벤치마킹 했으며, ‘그린스타트업타운’은 도시재생을 더한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역 모델을 주로 벤치마킹 했음.
- 충청남도는 2020년 9월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그린스타트업타운’ 및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을 천안역 입접지에 동시 유치하여 총 2단계로 진행되는 사업 중 2022년 8월에 1단계 인프라 운영을 시작하였고, 2단계 인프라인 INNOST타워는 2026년 말 준공될 계획임.
- 또한 KTX역 인근 아산 배방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치한 콘텐츠창업기업이 입주하는 ‘콘텐츠기업육성센터’와 ‘글로벌게임센터’ 등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유치한 ‘창업마루나비’는 천안 불당동에 조성되어 운영 중.

□ 충청남도 창업지원 공간 운영 및 지원 방향성

- 창업지원 인프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네트워킹 하면서 혁신적인 아이템을 기획하고 생산하며, 사업화하여 종국적으로는 지역 경제와 산업을 선도하는 유니콘기업이 육성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스타트업과 인력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 90%이상 분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충남의 창업지원공간은 수도권과의 차별성을 가진 매력적인 공간구성과 편의·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충남 천안의 그린스타트업타운은 스타트업에게 최적의 정주환경 제공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이 온전히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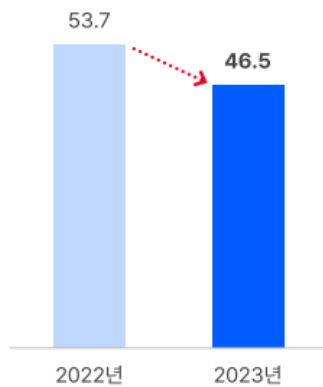


- 스타트업 특성상 트렌드에 민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간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만큼 매년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지원방향 고민 필요.
- 서울대학교 김난도교수 외 발행하는‘트렌드 코리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등의 최신 트렌드 리포트 등을 참고하고, 입주 스타트업과 간담회, 수요조사 등 실시하여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공간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 방향성 설정.
- 한가지 예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2023.11)에 따르면 스타트업 재직자 중 42.0%만이 스타트업 생활에 만족하며, 이는 작년 대비 7.2%p 감소한 수치.
-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워라밸 보장,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는 만족스러우나, 낮은 재정적 보상, 불안정한 조직 비전/전략 등이 불만족 요인.
- 또한 스타트업 재직자들은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이 70.8% 향후 이직 시 높은 재정적 보상 및 복리/복지 혜택이 좋은 대·중견기업을 가장 선호함.
- 그린스타트업타운은 이러한 트렌드와 입주기업 임직원 130여명 대상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계획하여 입주 스타트업 정주여건, 워라밸 확보, 교통비 등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 지원프로그램의 중간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성과로 신규 고용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 입주기업 중 고용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함.

□ 충청남도 창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 방향

-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2023.11)에 따르면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평가한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는 100점 만점 중 평균 46.5점으로 작년 대비 7.2점 감소하여 50점 미만으로 추락함. 주로 투자 위축/감소·경기 침체·시장 분위기 위축 등의 측면에서 최근 스타트업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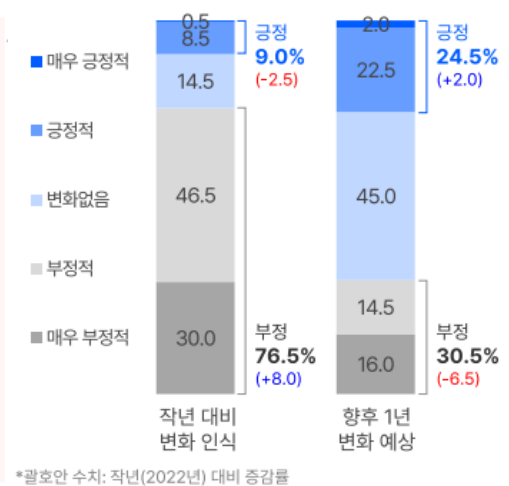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부정 평가 이유

투자/시장 상황	43.5
• 투자 위축/감소	30.0
• 자금 시장 경색	5.0
스타트업 운영	33.5
• 스타트업 파산/폐업	8.0
• 인재확보 어려움	5.0
• 경영악화/적자	4.0
• 인원감축/구조조정	3.0
인식	19.0
• 시장 분위기 위축	10.5
•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이 나쁨	3.0
경제/금리 상황	15.5
• 경기 침체	12.5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 위 조사결과는 수도권 스타트업 위주의 조사결과인 점을 감안 해야하며, 충남 스타트업은 수도권 스타트업 보다 더욱 창업 생태계에 부정적일 수 있음.
- 충청남도는 앞서 발표한 발제자료와 같이 창업의 핵심 주체로 초기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조력해 줄 주요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이하“AC/VC”라 함)이 총 11개로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혁신 주체이자 플레이어가 매우 부족함.
- 또한 창업자가 평가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부 역할은 52.5점, 시급한 개선점으로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 ‘각종 규제 완화’가 주로 응답되었으며,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작년 대비 증가함.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부 역할 평가



정부 시급 개선사항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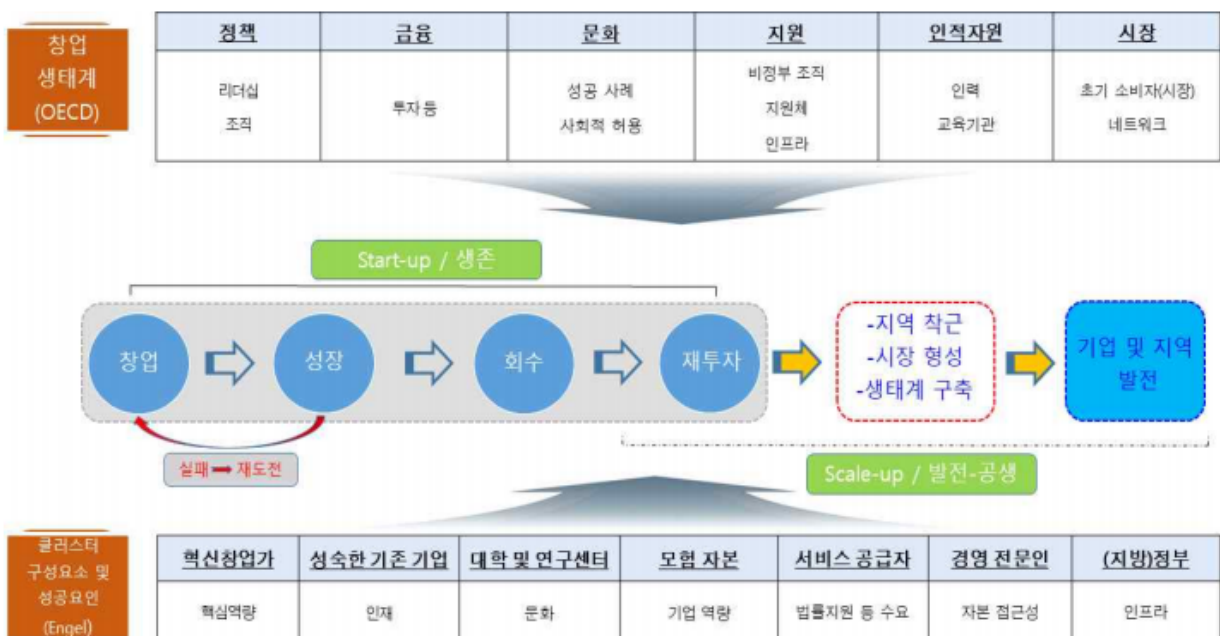
개선사항	점수	증감 (vs. 22년)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투자 활성화	29.5	-6.0
각종 규제 완화	25.0	+7.0
인수합병/기업공개 활성화 지원	10.0	-4.0
기술 및 연구 관련 인프라 지원	7.5	+2.5
대기업-스타트업 간 상생 발판 마련	7.0	-
우수 인력 확보	6.5	-0.5
글로벌 진출 기회 확대	6.5	+2.5
스타트업/창업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	4.0	-1.5
창업기업인 역량 강화/교육 지원	3.0	-1.0

정부 규제 완화 선호 분야

규제 완화 분야	선호도 (%)
개인정보보호법	9.9
각종 규제완화	9.9
금융 규제	7.9
의료법 개선	7.9
샌드박스 관련 규제	7.9
타다 우버 규제	5.0
노동/노무 관련 규제	3.0
서류간소화	3.0
주주 규제 완화	3.0
현실적인 정책 운영	3.0
투자규제 완화	3.0

[Base: 창업자 (n=200) / 정부 시급 개선 과제 '규제완화' 선택자 (n=101), Unit : %]

- 충남은 천안·아산이 서울·수도권과 1시간 내 거리라는 이점을 살려 AC/VC 등 우수한 혁신주체가 지역 창업지원 공간에 입주 및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규제완화 부분은 지역 창업지원기관의 역할에서 다소 벗어나 있으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서 자체적인 스타트업의 진입 허들을 낮춰주고, 불필요한 장벽을 허물어 주는 지원사업 정책활동이 필요함.
- 혁신 창업의 트렌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AI, BigData, Metaverse 등 첨단 기술 및 친환경 분야 그린테크 역량 등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성장하면서 지역 내 전통적인 주력 산업군과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사업화를 이뤄내는 구조임.
- 따라서, 어떠한 특정 분야에 집착하기 보다 미래 트렌드에 따른 혁신기술 창업 육성이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민간의 AC/VC 등과 협업하여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집중 지원하여 scale-up을 통해 global start-up으로 육성하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창업 생태계 육성과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OECD의 창업 생태계 및 Engel의 창업 클러스터 핵심요소 등을 참고하여 정책 구성 고려.



- 단기적으로 창업→성장→회수→재투자 생태계에서의 정책을 고려, 중기적으로 스타트업 및 클러스터가 지역에 착근하고 관련 시장을 형성하면서 global start-up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스타트업이 scale-up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 충남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어야 함.

○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환경인 지역에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자원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부산광역시처럼 모든 창업지원기관을 통합하여 '부산창업청'과 대규모 기관을 설립하기 전까지 개별 창업지원기관 단독의 역량만으로 해결이 불가능.

○ 충청남도는 OECD의 창업 생태계 및 Engel의 클러스터 조성 핵심요소와 관련된 지역 산·학·연·관·민 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 및 정책 마련으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 시너지를 강화해야 함.

○ 지역 창업 지원 산·학·연·관·민 혁신주체 간 협업사업 아이디어 예시를 제시함.

▷ 충남 창업지원기관 연계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킹 강화 필요

- 1) (기존포럼) 엔젤투자포럼, 나벤처포럼, 미래모빌리티포럼, 호두기술포럼 등
- 2) (기존협의체) 충남창업투자활성화, 충남과학기술투자, 충남창업지원 협의체 등
- 3) (신규제안) 대·중·소기업 네트워크(창업기관, 대·중견기업-상공회의소, AC/VC)
- 4) (신규제안) 글로벌 진출 네트워크 구축(각 기관 보유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 충남 스타트업 지원기관 공동주관 협업 활동 제안

- 1) (기존) 충남 스타트업 컨퍼런스(10개 기관 공동주관)
- 2) (신규제안) 충남 스타트업 어워드 개최(정책, 투자, 성장, 수출 등)
- 3) (신규제안) 스타트업 액티비티 네트워킹(합동 체육대회, 문화활동 등)
- 4) (신규제안) 스타트업 종합정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합동 사업설명회

▷ 충남 스타트업 투자활동 협업 체계 구축 제안

- 1) (기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ABL협동조합 공동GP의 개인투자조합 결성
- 2) (기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CNT테크 공동GP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
- 3) (신규제안) 지역 합동 시리즈 A~ 투자(어워드 활용 지역형 클럽딜 형태)
- 4) (신규제안) 지역기관 투자시 창업지원공간 우선 입주제도 도입 등

○ 끝으로,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정책에 스타트업 투자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지역 창업자는 더욱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음.

○ 향 후 지속적으로 지역 창업 지원 산·학·연·관·민 혁신주체 간 협업사업 및 정책 발굴 활동을 통해 데스밸리를 지나는 충남 스타트업에게 오아시스와 성장 플랫폼이 되길 희망함.

■ 부록 : 2024 트렌드코리아의 10대 트렌드 요약표

D	Don't Waste a Single Second: Time-Efficient Society 분초사회	시간이 희소자원이 되면서 시간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려는 사회적 경향성의 증대
R	Rise of 'Homo Promptus' 호모 프롬프트	인간 고유 창의성에 의거한 자신만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각종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
A	Aspiring to Be a Hexagonal Human 육각형인간	외모 · 학력 · 자산 · 직업 · 집안 · 성격 · 특기 등,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기를 선망하는 사람들의 열망, 좌절, 그리고 놀이
G	Getting the Price Right: Variable Pricing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하나의 고정 가격이 아닌 다양한 N개의 가격을 제안함으로써, 물가안등의 시대에 소비자와 윈윈할 수 있는 전략
O	On Dopamine Farming 도파밍	도파민 파밍.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활동에서 극단적이고 무모한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 행태
N	Not Like Old Daddies, Millennial Hubbies 요즘남편 없던아빠	밀레니얼세대 신랑 · 남편 · 아빠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남성상과 결혼 문화
E	Expanding Your Horizons: Spin-off Projects 스핀오프 프로젝트	브랜드 · 기술 · 조직과 개인의 경력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원작에서 파생되는 스핀오프 개념이 확장하는 현상
Y	You Choose, I'll Follow: Ditto Consumption 디토소비	사람 · 콘텐츠 · 유통채널 등 특정 대리체(proxy)가 제안하는 선택을 추종하는 소비
E	ElastiCity. Liquidopolitan 리퀴드폴리탄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자본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시너지가 액체처럼 흘러 넘치는 도시의 유연한 변화
S	Supporting One Another: 'Care-based Economy' 돌봄경제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나노사회 · 분초사회의 돌봄 기능

토론 04

권경선

충청남도청 기업지원과 과장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 추진 방안

'23.12.14(목), 기업지원과장 권경선

□ 충남도 벤처투자 활성화 추진 방안

○ 충남도 펀드 운영 현황

- 2000년부터 충남도는 충남벤처투자조합 1호를 시작으로 총 14개 펀드를 조성하여 6개는 청산완료, 1개는 청산 중, 7개는 운영 중임
- 청산 완료 또는 청산 중인 7개 펀드는 239억원을 출자하여 271억원을 회수
- 운영중 펀드 7개의 도 출자액은 147억원, 총 결성규모는 2,766억원임
- 충남도가 조성한 펀드가 기업에 투자한 실적은 87개 기업, 742억원임

【충청남도 투자조합 출자, 투자 현황(2000년~2023년)】

(단위 : 억원)

구 분	계	청산완료	청산진행	운영 중
道 출자액	386	189	50	147
기업투자액	741.6	319	70	352.6
투자기업수	87개	23개	3개	61개
회수금액	286.5	179	92	15.5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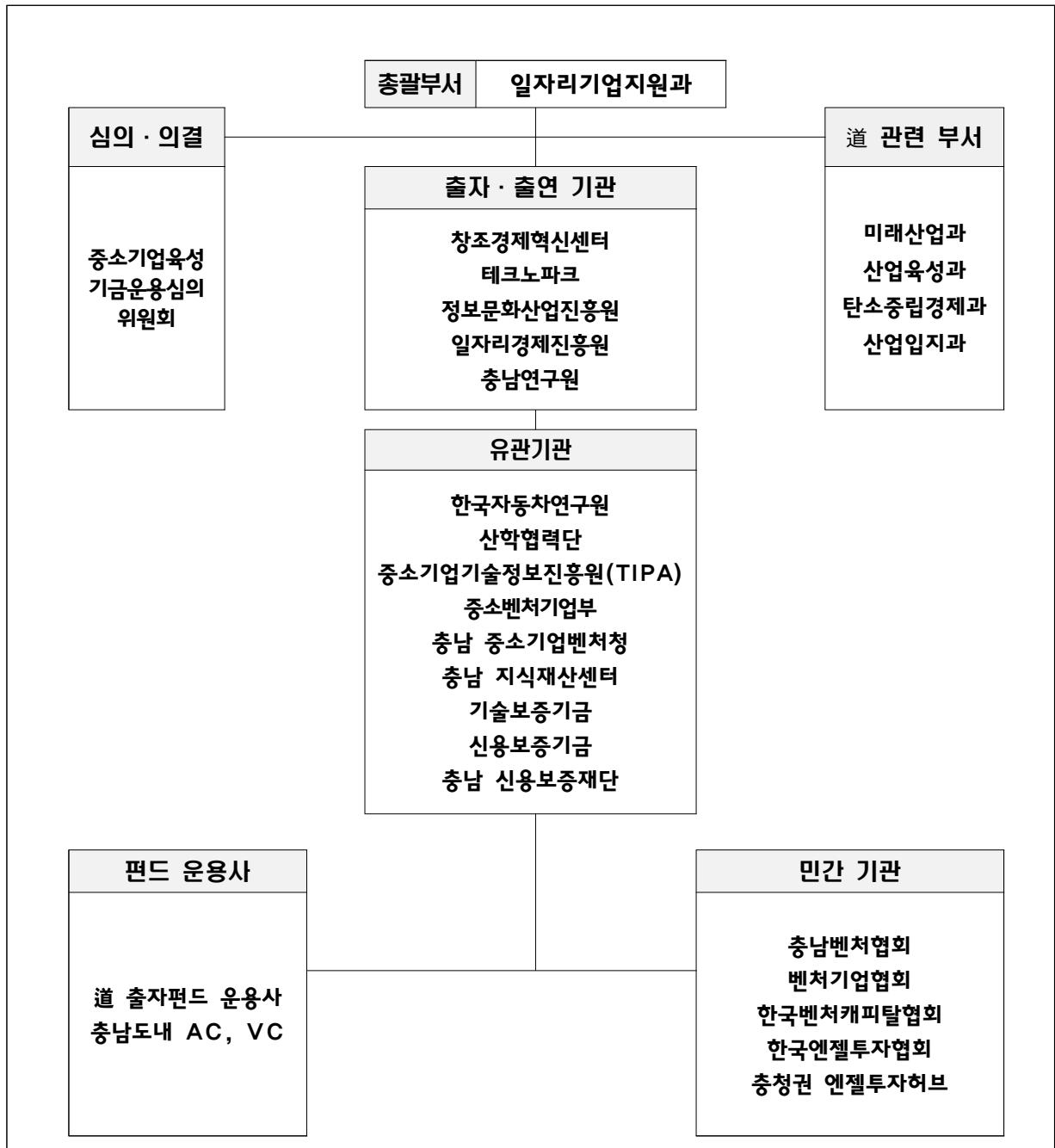
- 지자체가 펀드를 운영하는 방식은 ① 직접 출자하여 펀드를 관리하는 직접 출자방식, ②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조합에 납입하는 간접관리 방식이 있음
- 충남도는 2000년부터 충남 테크노파크에 펀드 출자금을 교부하여 출자하다가 2021년말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기존 조합지분을 이관하여 간접관리 해왔음
- 앞으로는 직접출자 방식을 채택하여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벤처투자 추진력을 확보할 예정임

○ 향후 추진 방안

- 도는 **출자금 예산 확보** 및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총괄 역할** 수행이 필요하므로, 2024년부터는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단순 출자금 관행을 탈피하여 벤처투자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자 함
- 벤처투자 생태계의 **투자자와 창업자가 교류·협력하는 IR데이, 투자포럼 등 정기적 네트워크**가 매우 필요하므로, 충남도내 창업·투자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겠음
- 도 출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유희자금이 충남도내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전략 투자분야로는 충남 3대 주력산업·미래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혁신산업 분야, 녹색산업, 모빌리티 산업, 융합바이오 산업** 등 4개 분야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재원 배분의 효과성을 제고하겠음
- **투자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내 창업·투자·기술전문가와 함께 투자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음
- 앞서 지적된대로 도내 TIPS 창업기획자는 2곳, 벤처투자회사는 전무한 상황 이므로 충남도가 출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 **도내 투자사에 가점을 부여** 하는 등 도내 벤처투자사가 충남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베이밸리 메가시티 지자체(천안·아산) 및 인구감소지역 지자체(9개) 등과 함께 **각 지자체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시, 도가 공동으로 출자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음
- 향후 벤처투자 관련 업무량 증가 및 네트워크의 지속적 관리·운영을 위해 도에 **벤처투자 전담 공무원**을 선발하고, **벤처투자팀**을 신설하는 등 지원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음
- 장기적으로 도가 조성한 펀드에서 출자받은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참 고

충청남도 투자네트워크 구성(안)





충청남도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

자료집